

 국 무 조 정 실 국무총리비서실	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 도 자 료</h1>	2017. 1. 23(월)	
		작성 · 문의	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 과장 정용욱 / 서기관 서한교 (Tel. 044-200-2124)
<p>* 엠바고 : 1.23(월) 13:30(행사종료) 이후 사용</p>			

## 이산가족 문제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인도적 사안

- 황교안 권한대행, 설 계기 첫 번째 민생행보로 이산가족 초청 간담회 개최
  - 이산가족 문제는 인륜과 천륜의 문제로,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
-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족 최대명절인 설을 앞두고, 1월 23일(월) 12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이산가족들을 초청하여 오찬을 함께 하며,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.
- \* (참석) 통일부 장관, 통일부 공동체기반조성국장 등
- 설 명절 계기 첫 번째 행보로 실시되는 이번 오찬 간담회는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나누고 이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이자,
  - 황 권한대행이 작년 9월 13일 ‘이산가족의 날’ 기념행사에 참석하기로 하였으나,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도발 등으로 불참하게 되면서, 추후 이산가족을 초청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.
  - 이날 간담회에는 지난 2015년 10월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6.25 당시 북한에 두고 온 딸과 상봉했던 김현숙 할머니(90세) 등 이산가족 열 분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.

- 황 권한대행은 혈육이 함께 생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로, 남북 관계를 떠나 **인륜과 천륜의 문제**라는 점을 강조하였다.
  - 아울러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인도적 사안으로 보고, 북한 당국에 전면적 생사확인, 상봉 정례화, 서신 교환 등을 지속 촉구해 왔으나,
  - 북한이 이에 호응하지 않은 채,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모한 도발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하였다
- 황 권한대행은 이산가족들을 위로하며 정부가 이산가족 문제의 역사적 무게를 잘 알고 있고, 이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임을 약속하면서,
  - 북한도 하루빨리 이산가족들의 전면적 생사확인을 포함한 우리의 요구와 노력에 호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.
  - 또한, 이산가족 상봉이 당장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지만, 통일부와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이산가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차분히 준비해 나갈 것을 통일부장관에게 지시하였다.